

Q1. 첫 개인전 SUNDAY ELEVEN의 주제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이번 전시가 다루는 주제는 특수성이 강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 경험한 한국 교회의 흥망성쇠 과정이 사회적 맥락 안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시작하시던 시점은 한국에 교회가 확산되던 시기였고, 목사는 주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부도덕한 이슈들로 인해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집단까지 되었고 제가 대학에 들어가는 시기부터는 양적으로도 점차 감소·쇠퇴하였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 교회의 성장과 쇠퇴에 가장 민감했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 단순히 교회를 관망하는 입장에서 있을 수 만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나의 가족의 맥락에서 교회를 경험해왔다면, 동시대 미술을 공부하고부터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의 '교회의 성장과 쇠퇴'를 훨씬 더 분석적으로 보게 된 것이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한국에서 비판적으로 봐왔던 사회문화적 현상들은 제가 경험해왔던 교회라는 공간에도 압축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개인전을 본인의 개인사를 중심으로 다루는 것은 저 자신에게도 의미가 있고, 또 이 작업이 개인의 교회에 대한 고발을 넘어서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Q2. 전시 제목은 어떤 의미인가요?

'선데이 일레븐'(일요일 오전 11시)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카페를 가거나 낮잠을 자는 등 자유로운 시간이지만 교회에서는 가장 큰 예배가 드려지는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교회에 의해 상징화된 시간, 사물, 언어를 교회가 아닌 외부환경에서의 조건과 중첩시켜서 다시 비종교적 의미들로 해체시키는 과정이 이번 전시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Q3. 전시 공간 구성과 연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전시장으로 들어오는 계단 위에는 빨간색 네온사인이, 전시장 안에는 빨간색 카펫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모두 관객에게 물질적인 의미로 먼저 다가올 것입니다. 빛나는 조명의 밝기와 색상, 바닥에서는 카펫이 촉감으로 느껴지면서 기능적이고 시각적인 효과를 주거나 자신이 기존에 경험했던 공간들의 연장선상에서 의미가 연상되리라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의미 없이 물질을 먼저 경험하게 하는 과정은 관객으로 하여금 이러한 물질에 대한 종교적 상징화를 더욱

자의적인 것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세계로 트래블 어댑터>의 설치  
'세계로'라는 단어가 제품명에 더 적합해 보이는 것으로 관객에게 경험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Q4. 종교적 상징이나 슬로건의 해체와 재구성의 과정을 담고 있는 <세계로 트래블 어댑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계로교회"는 아버지가 세운 교회의 이름입니다. 부모님에게는 "세계로"가 세계로 진출하고 뺏어나가는 교회를 향한 비전을 담은 언어였겠지만, 저에게는 종교적 메시지와 양립할 수 없는 자본주의적 슬로건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러한 의식적 차이가 이 작업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세계로"라는 단어가 쓰이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세계 여행용 어댑터'라는 프로젝트를 고안했습니다. <세계로 트래블 어댑터>는 아버지가 지으신 세계로교회의 건축적 형태를 모방을 해서 제작되었는데, 종교적 의미로 쓰인 "세계로"의 사례 위에 실용적 의미의 "세계로"가 덧씌워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어댑터는 단자들이 내장되어 있어서 실제 기능을 위해 단자를 꺼내려면 교회의 외관이 훼손되고 해체가 되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해체'라는 키워드를 형태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즉 <세계로 트래블 어댑터>는 실용적 기능을 위해 종교적 상징의 외관을 해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Q5. 모태신앙인 기독교인으로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작품에 드러내고 싶었던 내용과 한계,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미술을 공부하면서 즐거웠던 시간이 크리틱 시간이었습니다. 작품을 함께하는 작가들이 서로의 작업을 비판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는 활동은 제가 경험해온 교회 내부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었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스스로에 대한 비판을 직면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로 이를 회피하는 성향이 더 강하다고 느껴왔습니다. 반면 미술에는 제도비판의 역사가 있었고, 현재도 스스로를 향한 비판적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어느 집단에서나 자기비판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회 역시 스스로의 체계를 재고찰하는 내부비판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자기비판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저와 부모님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영상 작업 제작을 함께 의논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세계로 트래블 어댑터>를 교회에 대한 비판적 의미가 아닌 세계로교회의 슬로건을 완전히 긍정하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관점이 부모님이 여태껏 살아오신 세계의 방식임을 인정하면서, 나의 작업이 이것을 부정하는 공격적인 태도로 읽히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세계로 트래블 어댑터-대만에서의 도슨트>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부모님과과의 여러 대화 이후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교회의 모든 상징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식의 공격적인 태도는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뿐일 것입니다. 다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사람들에게 의해서 합의된 합리적 상징과 물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양산된 작위적 상징은 분명 구분이 가능하고, 후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교회 안팎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6. 디자인전공에서 순수미술로, 두가지 전공이 작가님의 작업이나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디자인은 소통을 전제로 하는 시각 체계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하나의 정보를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유통되고 있는 외부의 기호체계를 참조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한 디자이너가 포스터를 제작하면서 배경을 빨간색으로 칠한다고 한다면, 동시에 빨강을 배경색으로 쓰는 브랜드가 있는지, 그 브랜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지, 그 색상에 대한 대중의 인지방식이 포스터를 통해 전달하려는 내용과 잘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지요. 요약하자면 디자이너는 기표의 동시대적 의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디자이너로서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기표가 본래 사회적으로 의미화되던 방식에서 뿌리뽑혀 도구적으로 사용되는 현상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선거철에 여러 후보들이 정치와 아무 연관성이 없는 수많은 구호나 유행어, 가요, 동요, 심지어 찬송가까지 앞다투어 자신들의 홍보수단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이것은 제가 <Red Materials>에서 다루었던 주제와 같은 선상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격한 차용의 방식들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가는 시각문화를 훼손하고, 비판적으로 재고찰되기 보다는 권위적인 시스템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인되는 것 같습니다.

대개의 디자이너의 일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의뢰받은 내용을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지를 방법론적으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즉 디자이너는 의도를 가지고 시각화 방식을 결정하는데, 이것은 또한 디자이너가 이미지를 통해 다른 디자이너의 의도를 읽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의 경우는 작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디자이너로서의 경험이, 일상의 관례화된 이미지나 형식들을 이데올로기적 의도와 연결하여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세련된 이미지의 생산은 사실 세련되지 못한 무엇을 은폐하기 위한 시각적 전략으로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즉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여러 이미지들은 그저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제작자의 전략과 의도를 거쳐나온 결과물들이며, 이것은 필연적으로 시민들의 사고방식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순수미술과 디자인의 접점을 통해 일상의 디자인에 은폐된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고, 비판적 사유의 도구로써 디자인이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통해 훈련된 타인지, 가끔은 작업의 개념을 충실히 드러내기보다 시각적으로 세련된 형식을 만드는데 빠져버리곤 하는 맹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작업 내용을 완전히 알아 읽을 때도 종종 있구요.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디자인의 매력과 작업의 내용 사이의 균형을 잘 잡으려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세련된 이미지를 생산하는 차원을 넘어, 비판적 개념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디자인을 사용하는 과정은 저에게 늘 즐거운 일입니다.

인터뷰 진행 : 김보영